

## 2018년도 국내은행 펀더멘털 개선 지속예상

박현희 hyunhee.park@scri.co.kr 02-6966-2466

기업/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실장

### SUMMARY

서울신용평가는 2018년 은행의 영업환경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하며, 동사가 예상하는 국내은행들의 총여신 성장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대략 일치하는 4~5%수준이다. 이는 2018년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2018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2017년 잠정치 3.1%와 비슷한 수준인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부진하던 민간소비 또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완만한 경기개선 흐름은 2018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3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에 있을 것이다.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차주들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초대형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로 경쟁은 심화될 것이나 기존 국내은행들의 손익에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2018년도 국내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글로벌 경기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지속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리상승 여파가 영업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가계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연결되면서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두 섹터의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의 확대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18년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은 당기순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자본의 성장률이 위험가중자산의 성장률을 상회함으로써 소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9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12.7%, 총자본비율은 15.4%로 2019년까지 최소 준수해야 할 자본보전완충자본 포함 보통주 자본비율 8.0%를 충분히 상회한다.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G-SIB(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와 비교하여 90bp정도 우수하나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들의 경우 글로벌 은행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수익성 및 효율성은 순이자마진 상승, 점포 및 인력 축소노력으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유동성관련 규제 확대로 은행의 조달구조는 안정화되고, 고유동성 자산 보유는 확대되어 유동성에 긍정적이다. 다만, 2018.1.19일 금융위원회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의 예대율 규제로 가계대출비중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들간에 성장 및 수익성에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3.0%로 2017년 잠정치 3.1%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도에도 은행의 영업환경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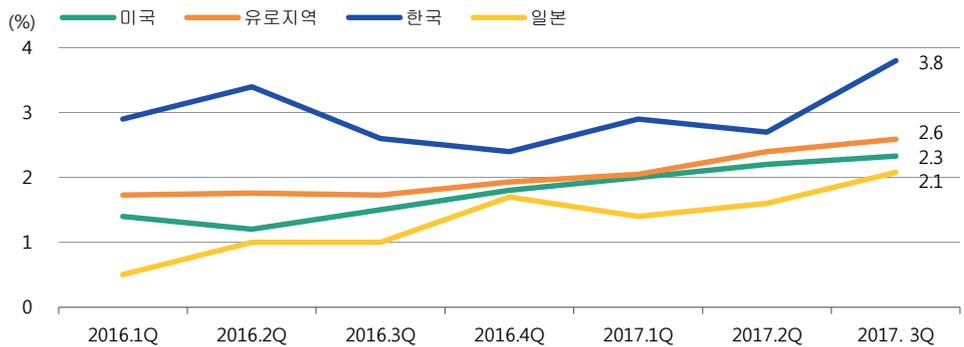
**영업환경 안정적**

서울신용평가는 2018년 은행의 영업환경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사가 예상하는 2018년도 국내은행들의 총여신 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과 대략 일치하는 4~5%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2018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2017년 잠정치 3.1%와 비슷한 수준인 3.0%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유로지역이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일본도 투자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중이다 (그림1). 신흥국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자원수출국은 상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그림2). 세계교역 또한 회복세가 뚜렷하여 CPB가 발표한 2017년 1-9월 중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4.4%로 최근 3년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3).

**[그림1] 선진국 분기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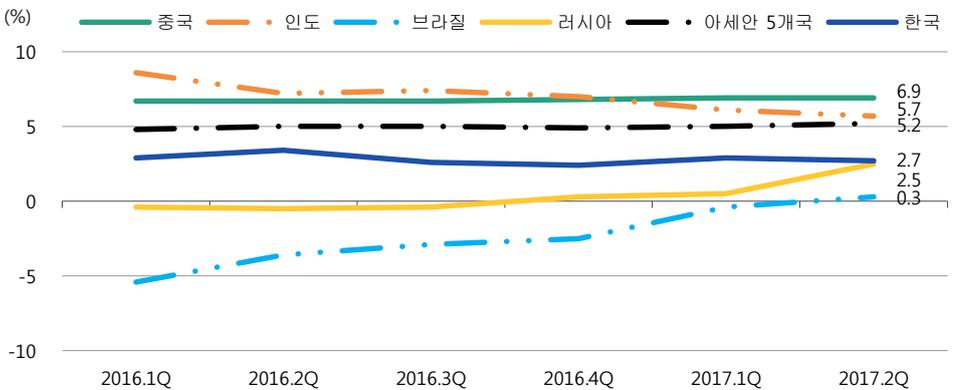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각국통계청, OECD  
 주: 미국, 일본 GDP 는 계절조정 수치

**[그림2] 신흥국 분기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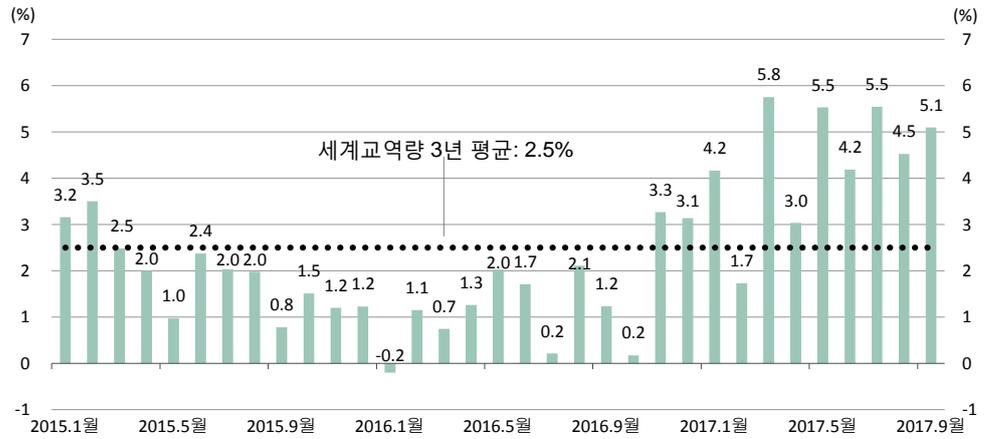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각국통계청

[그림3] 세계교역량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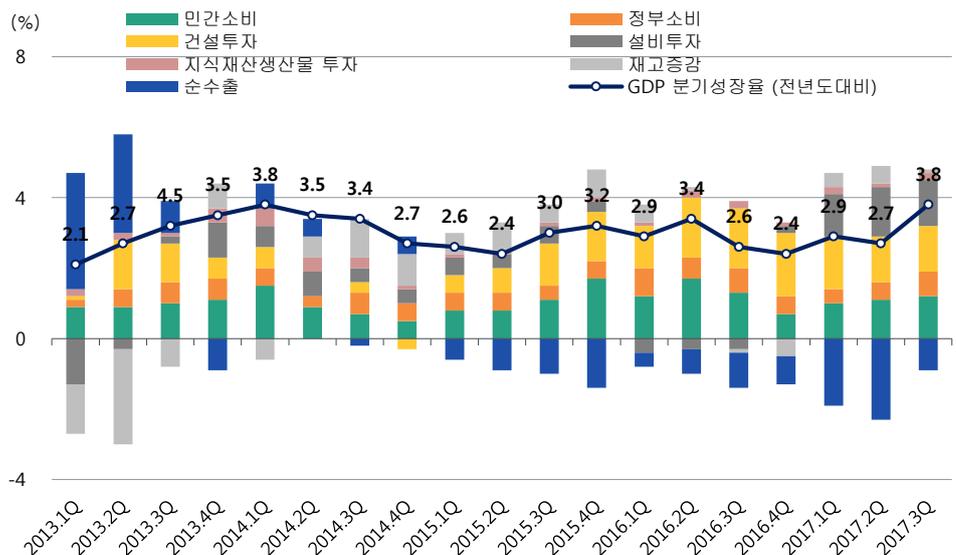
자료: CPB 세계교역량 모니터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18년 한국경제는 2017년의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가 꾸준히 성장한 것에 기인하여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국, EU 등을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철강제품 및 석유제품 등의 가격 상승 및 수요확대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기 도래로 반도체 산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투자확대에 기인하여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림4). 기업대출부실의 선행지표라고 판단되는 설비투자지표가 상승추세에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 회복추세는 2018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5).

[그림4] 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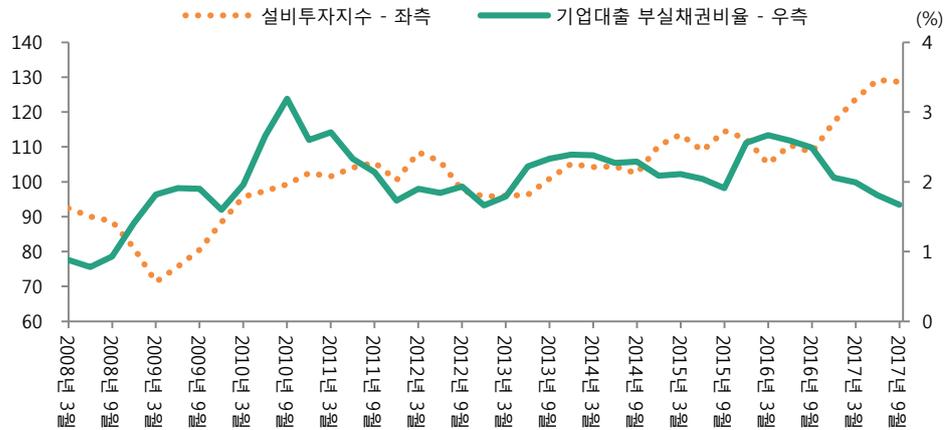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5] 설비투자지수와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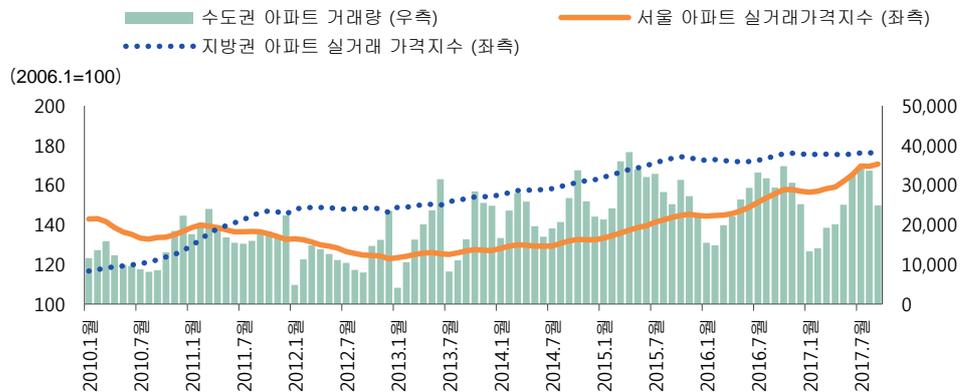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유지될 것**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2017년 11월3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에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정도 및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에 따라 완화기조가 조정될 것이다. 물가는 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거래량 축소가 지속될 것이나 가격상승세는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이다. 2017년 5월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11.3 기준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 수요는 감소하여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량이 축소되었다 (그림6). 그러나, 실수요자에게 인기있는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의 경우 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진행단계별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6]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및 거래량 (2010.1 - 20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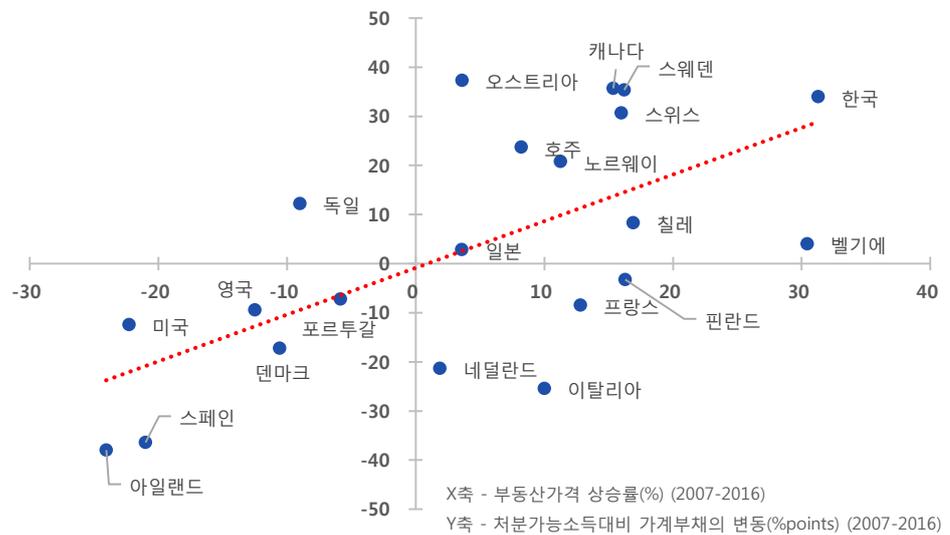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2014년 이후 빨라진  
가계부채증가 속도는  
주택시장 호조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

2014년 이후 빨라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주택시장 호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9월말까지 금융권 총가계대출 연평균성장률은 10.3%로 금융위기 이후 2014년말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6.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4년 이후의 가계대출 성장은 초기에는 LTV·DTI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이 컸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시장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OECD 연구<sup>1</sup>에 따르면, OECD국가 중 금융위기 이후 높은 가계부채 증가를 경험했던 국가들은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7).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 상승으로 가계의 추가대출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림7]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감의 상관관계**

(단위: X축-%, Y축-%points)



자료: OECD Analytical Housing Price 데이터베이스, OECD 계산  
 주: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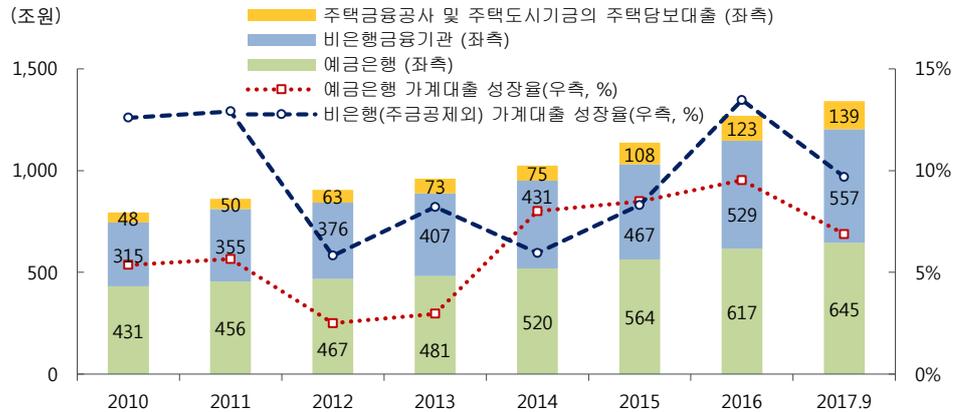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나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

그러나,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2017년 6.19 주택시장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규제비율을 강화 (LTV 70% -> 60%, DTI 60% -> 50%) 한데 이어 8.2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LTV·DTI를 각각 40%로 더욱 강화하여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추가대출여력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3분기 말 은행의 가계대출은 64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나 2014년과 2016년 사이 은행의 가계부채 연평균성장률 9.0% 대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림8). 또한 2018년 4분기부터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하고 2019년부터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여 당분간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강화된 은행권 가계대출규제로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차주들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sup>1</sup>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7 Issue 2

[그림8] 가계부채 증감추세 (2010.12 - 2017.9)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인터넷 전문은행 및 초대형증권사의 단기금융업인가로 경쟁은 심화될 것이나 기존 국내은행의 손익에 위협적이지는 않은 수준

인터넷 전문은행 및 초대형증권사의 단기금융업인가로 경쟁은 심화될 것이나 기존 국내은행의 손익에 위협적이지는 않은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P2P핀테크 업체들은 인터넷, 모바일 채널을 통해 국내 기존 은행 대비 비교적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말 기준 인터넷 은행의 자본 규모는 국내은행 총자본 대비 0.5%에 불과하고, 제한된 자본규모로 자산성장에 제약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은행들의 손익에 위협적이지는 않다. 2017년 11월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가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각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금관련 증권사와 은행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발행어음의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은행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의 일부 이탈이 예상되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발행어음으로의 대대적인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산건전성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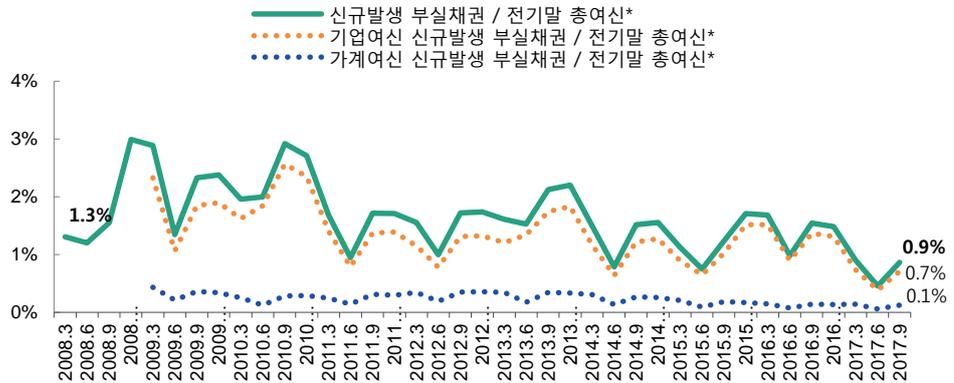
글로벌 경기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지속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국내은행의 신규부실채권비율은 1%대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8년도 국내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글로벌 경기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지속으로 전반적인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리상승 여파가 아직 영업이익의 회복이 저조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가계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연결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늘어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17년 은행 자산건전성은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였다. 조선, 해운 등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부실여신 정리가 지속되었고,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몇 년째 개선되면서 신규부실채권비율은 2017년 3분기말에는 2008년 1분기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 0.9%로 내려왔다. 가계여신에 대한 신규부실채권비율도 2017년 3분기말까지 7분기 연속으로 0.1%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9).

[그림9] 신규발생부실채권비율 (2008-201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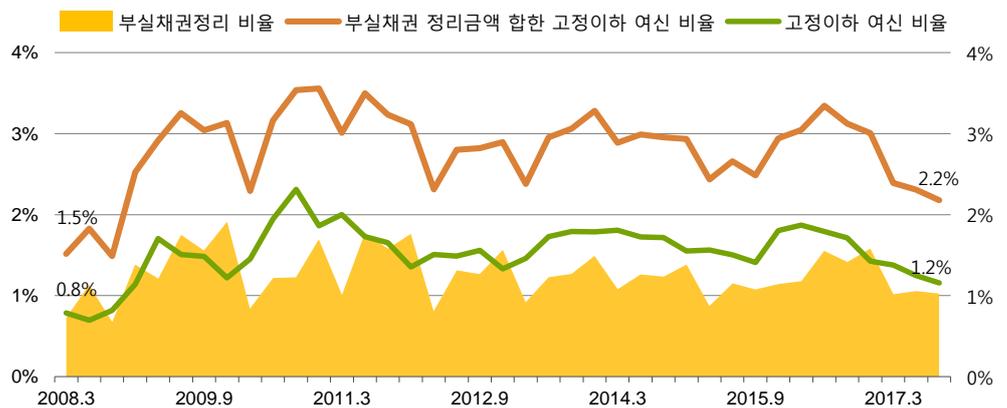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주: \*분기별 발생한 신규발생부실여신을 연환산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은 신규발생부실채권과 지속적인 부실여신정리로 2009년 1분기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17년 3분기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2%이고 부실채권 정리금액을 합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2%이다. 이는 부실채권의 상각/매각/담보처분 비율이 낮은 미국 (2017년 3분기말 Noncurrent Loan Ratio 1.20%)과 일본 (2017년 1분기말 고정이하 여신비율 1.3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정리비율은 조선, 해운업의 부실채권 정리가 2016년에 일정수준 마무리 됨에 따라 2016년 1.6% 대비하여 2017년 1분기-3분기에는 1% 이내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그림10).

[그림10] 고정이하 여신비율 vs. 부실채권 정리금액 합한 고정이하 여신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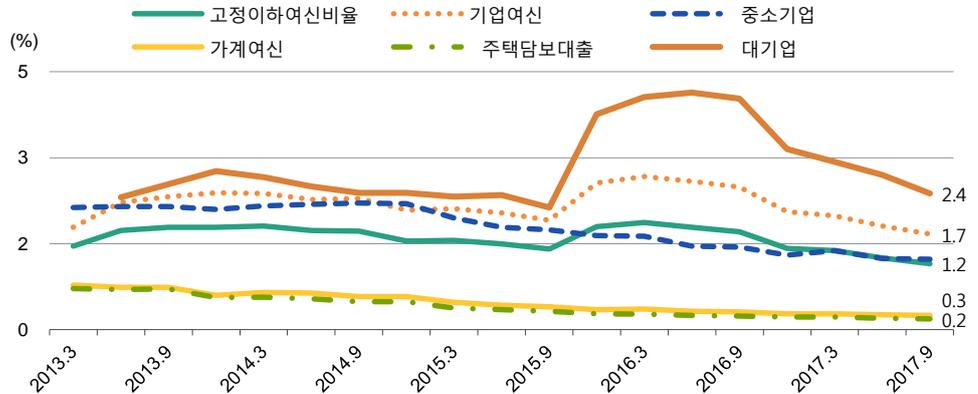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각 차주별 고정이하 여신을 보면 기업여신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업종 기업들의 업황 개선, 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담보처분 등으로 대기업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 3분기 말 2.4%로 전년 동분기 말 4.0% 대비 1.6% 포인트 하락하였다. 중소기업여신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2%로 전년 동분기 말 1.4%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가계여신도 2017년 3분기말 기준 0.2%로 최저 비율을 4분기째 유지하고

있다(그림11).

[그림11] 차주별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3.3 - 201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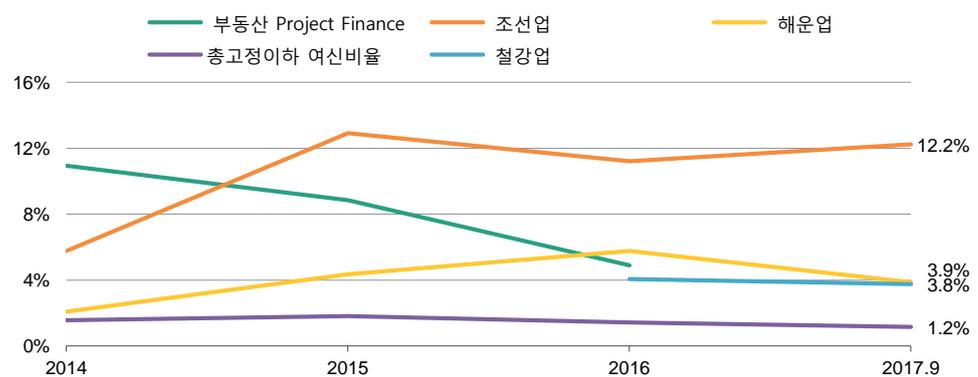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취약업종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7년 3분기 말 전체 기업여신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인 1.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실여신 정리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선업의 경우 업황부진이 지속되어 전년말 기준 11.2% 보다 소폭 상승하여 12.2%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기록하였다(그림12).

그러나, 2018.1.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시 법적 우선변제권 및 구조조정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같은 신용전망을 감안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존대출보다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구분없이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대출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신규부실대출 채권으로 계상하던 것과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2] 취약업종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4 - 201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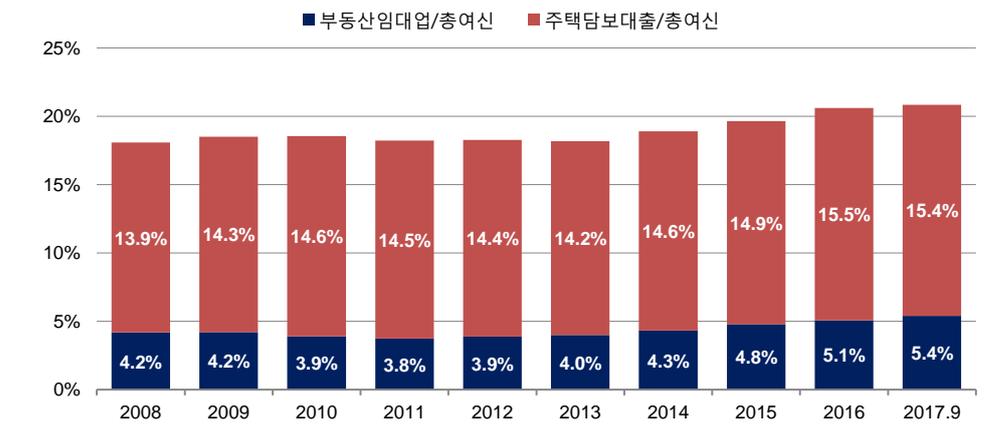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과 연계된 은행의 대출 증가로 집중도 높아진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업종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는 2014년 8월 LTV·DTI

규제완화 및 2015년 하반기 이후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시장 호조와 동반하여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림13). 아직까지 이 섹터의 부실채권 비율은 현저히 낮으나 추후 은행의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13] 총여신 대비 부동산관련 익스포져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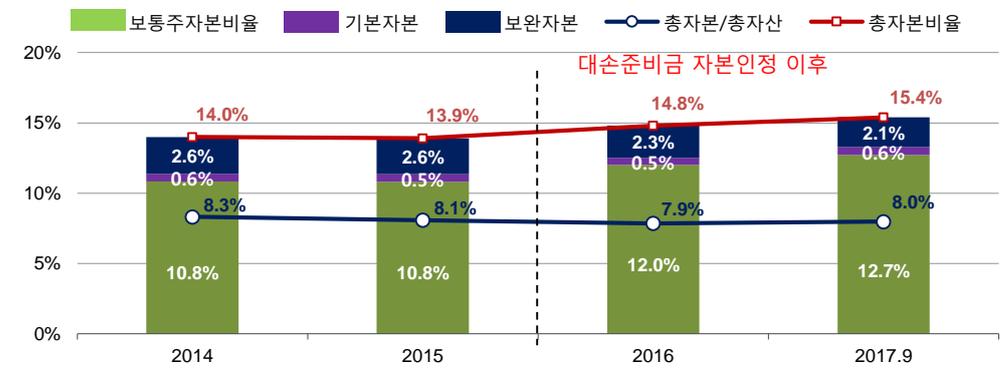
### 자본적정성 안정적

2018년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은 소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 전체적으로 자본비율은 글로벌 주요은행들과의 30bp 마이너스 갭이 있으나 바젤 III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혁의 영향으로 축소될 것으로 본다.

2018년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은 소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기순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자본의 성장률이 위험가중자산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7%, 총자본비율은 15.4%로 2019년까지 준수해야 할 자본보전완충자본 포함 보통주자본비율 7.0%를 충분히 상회한다. 2016. 12.20일 대손준비금의 자본인정으로 인해 국내은행들의 2016년 말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2017년 들어서도 9월말까지 당기순이익의 성장 및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둔화로 보통주자본비율은 70bp 정도 개선되었다(그림14).

[그림14]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2014-2017.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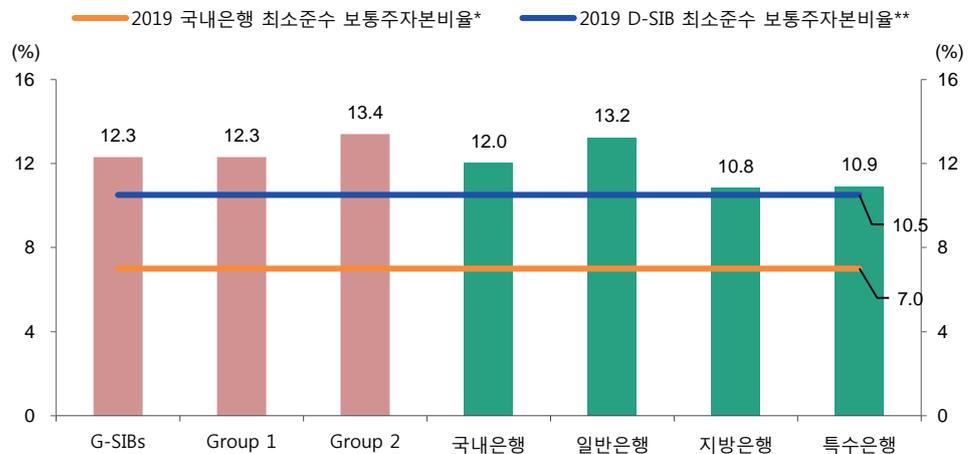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바젤 III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혁의 영향은 국내은행들의 자본비율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 바젤 III 규제개혁이 저위험자산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2022년 1월 규제완료시 국내은행들의 총자본비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구성에 있어서도 위험가중치가 하향된 저LTV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증가하고, 위험가중치가 상향된 고위험자산인 주식, 펀드, 고 LTV주택담보대출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8년 레버리지규제가 도입되나 2017년 6월말 국내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6.9%로 규제비율인 3.0%를 크게 상회하여 규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 전체적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은 글로벌 주요은행들과 비교하여 30bp 정도의 갭이 존재하나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본다. 일반은행들의 경우 G-SIB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기본자본금 30억 유로 이상의 은행들 (Group 1)과 비교시 보통주자본비율이 90bp 높은 반면,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들의 경우 Group 1에 비해 140bp 정도 낮고, 기본자본금 30억 유로 이하의 은행들 (Group 2)에 비해 250bp 정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대출자산의 60% 내외를 (일반은행들의 경우 37%) 차지하므로 바젤 III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혁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글로벌 은행들과의 갭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그림 15).

[그림15] 글로벌은행 보통주자본비율 비교 (2016)

(단위: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2017.9)

주1: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주2: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3: 특수은행은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주4: Group 1은행은 기본자본금이 3십억유로 이상이고, 국제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 Group 2은행은 그 이외의 Basel III협약은행

주5: D-SIB은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및 지주사.

주6: \*자본보전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포함

주7: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추가자본 포함

국내은행들의 이자이익 및 효율성 개선은 순이자마진 상승, 점포 및 인력 축소노력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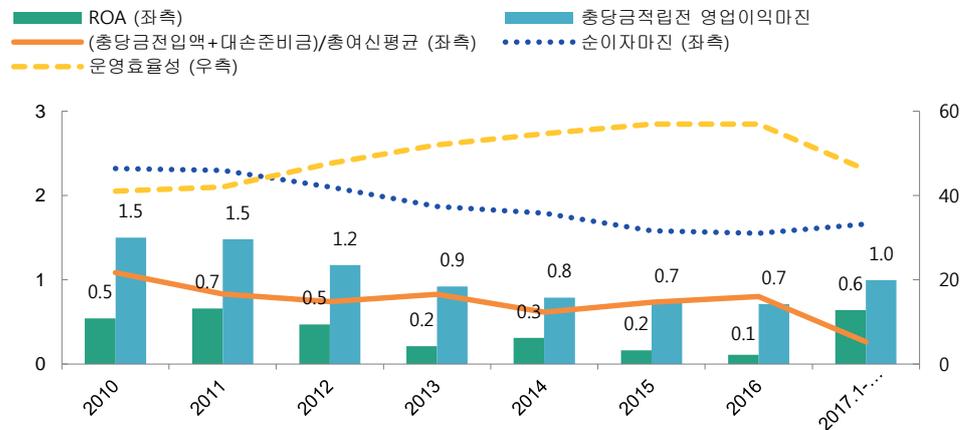
**수익성 안정적, 효율성 긍정적**

국내은행들의 이자이익 및 효율성 개선은 2017년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은행들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ROA)는 0.6-0.7% 수준으로 2016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준금리 상승과 풍부한 저원가성 예금에 기인한 순이자마진 상승, 대손비용의 하락에 대한 기대에 기인한다. 국책은행자본 확충펀드가 2017년 말로 자동폐지 된 점에서 시사하듯이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산업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을 저해할 만한 대손비용 및 투자지분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8년 IFRS 9도입으로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예상손실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총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총당금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회계제도 변경으로 유가증권 매각이익이 이익으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과거와 같은 비이자이익증가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18.1.19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가계대출에 가중치 15%상향, 기업대출 가중치 15%하향) 됨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높아진 예대율을 조정하기 위해 예수금을 확대하거나 가계대출을 축소해야 하므로 성장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 가계대출 비중이 적은 지방은행들의 경우 성장에 대한 제약이 없어 성장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16] 수익성 추이 (2010-2017.9)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주1: ROA = 총자산순이익률  
 주2: 운영효율성=영업비용/영업수익

2017년 1-3분기 총자산순이익률은 0.64%로 2011년 이후 최고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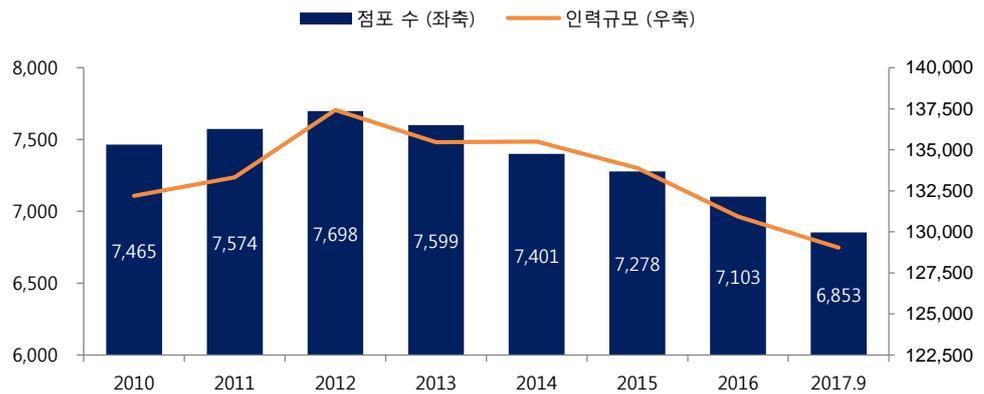
2017년 1-3분기 총자산순이익률은 0.64%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순이자이익마진의 확대와 대손비용의 하락에 기인한다. 해당기간 중 총자산 순이익률은 2016년 0.11% 대비 0.53% 포인트 상승하였고, 순이자마진은 1.66%로 2016년 1.55% 대비 11bp 상승하였다. 마진의 확대는 대출금리가 금리상승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저원가성예금 확대로 오히려 하락한데 주로 기인한다. 총당금전입액과 대손준비금을 총여신평균으로 나눈 대손비용률은 0.26%로 2016년의 0.80%대비

54bp 하락하였다. 주요원인은 2016년 거액의 대손비용이 발생했던 STX,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에서의 대손비용 반영효과 소멸이다. (그림16)

**판매관리비 증가로 효율성 지표는 악화되었으나 지속적인 점포·인력 축소로 인해 2018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금리·저성장에 대한 우려 및 비대면거래의 증가로 2013년부터 시작된 점포 및 인력 축소노력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및 P2P 핀테크 업체들과의 인터넷 기반 소매금융의 경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전체 국내점포수는 2017년 3분기 기준 6,853개로 2012년 말 대비 845개 (11% 감소)가 줄어들었고, 인력규모 또한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17). 이로 인한 판매관리비의 증가와 금리하락으로 인한 영업수익 하락으로 운영효율성 (영업비용/영업수익) 지표가 2012년 말 47.7% 대비 2013년 말 52.1%로 오르기 시작하여 2016년 말 57.0%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부터는 최근 5년간의 인력 감축 및 점포 축소의 노력이 효율성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7] 은행점포 및 인력규모 변화 (2010-2017.9)

(단위: 개, 명)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점포 수는 국내 점포수임. 인력규모는 직원의 인력 포함 국내근무자로 계산함.

### 자금 조달 및 유동성 긍정적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관련 규제 확대로 은행의 조달구조는 안정화되고, 고유동성 자산의 보유는 확대되어 유동성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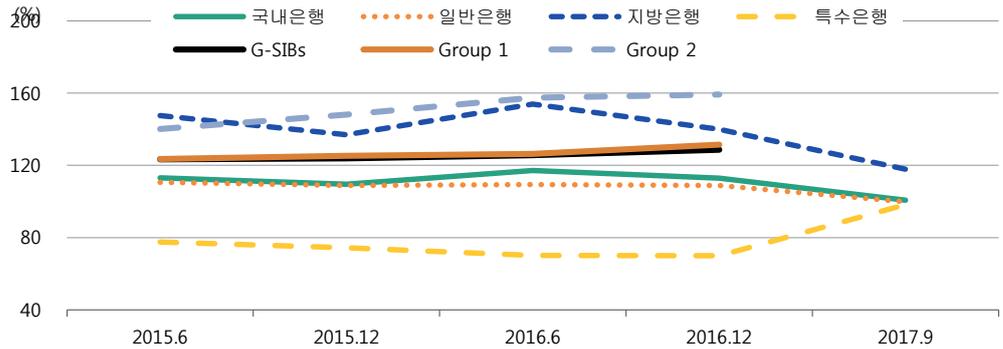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유동성관련 규제 확대로 은행의 조달구조는 안정화되고, 고유동성 자산 보유는 확대되어 유동성에 긍정적이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규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단기(30일) 유동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LCR의 경우 2018년도에는 95%로 2019년에는 100%로 최소준수비율이 상향조정될 것이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중장기 유동성규제비율에 해당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규제가 신규로 도입되어 최저규제비율 100%를 적용 받게 된다.

국내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최소준수비율을 상회하나 글로벌 주요은행들에 비해 낮다. 일반은행들의 동 비율은 G-SIB 은행들과 Group 1 은행들에 비해 20% 포인트, 한편 지방은행들도 비교대상인 Group 2 의 은행들에 비해 20% 포인트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다(그림 18). 국내은행들의 총부채 대비 순 현금유출액 비율이 글로벌 은행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LCR 이 낮은 이유는 LCR 규제 도입 이후 국내은행들이 국공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과 낮은 이탈율이 적용되는 영업적 예금을 늘려왔으나 그 비중은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그림 19).

[그림18]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2017.9)

주1: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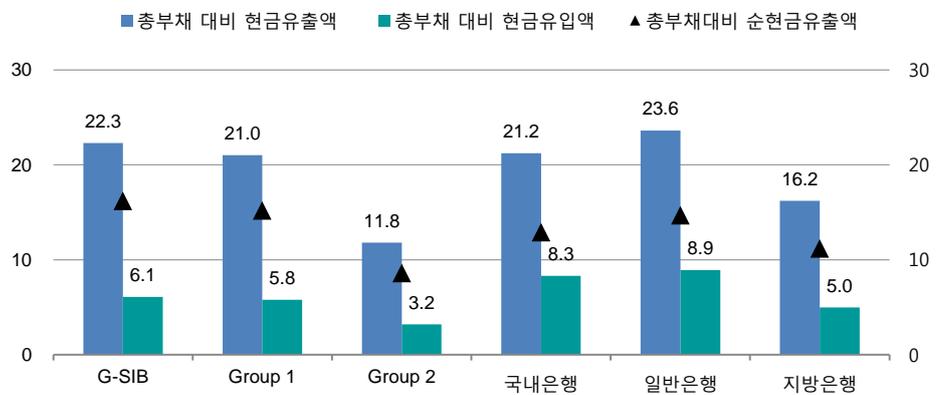
주2: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3: 특수은행은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주4: Group 1은행은 기본자본금이 3십억유로 이상이고, 국제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들, Group 2은행은 그 이외의 Basel III협약은행

[그림19] 총부채 대비 현금유출액과 현금유입액 비율

(단위: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제결제은행 (BIS) Basel III Monitoring Report (2017.9)

주1: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주2: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주3: Group 1은행은 기본자본금이 3십억유로 이상이고, 국제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들, Group 2은행은 그 이외의 Basel III협약은행들